

“인구대책, 시민이 나서야”

익산시, '28만 붐괴사수' 고강도 인구 대책 제시 '주소 바로 갖기 운동' 동참한 시민에 포상금 지급

익산시가 청년수당 신설 등 고강도 인구 대책을 제시하며 당장 연말에 다가올 28만 붐괴를 사수하기 위한 시민 참여를 호소했다.

정현을 시장은 28일 유재구 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택과 일자리, 출산·양육, 문화환경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일 정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진행한 끝장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부서별 심층토론을 통해 발굴한 핵심 사업들로 구성했다.

우선 주택 분야에서는 '익산형 택지 개발'로 명품 주거 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인력한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분양 절차를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마동공원 GS자이 1,446세대, 수도산공원 제일 풍경채 1,515세대, 모인공원 중흥 S클래스 968세대, 팔봉1지구 서희 스타힐스 2,330세대 등 무려 8천세대가 시내 중심지 도시 숲에 조성되며 부송4지구 1,529세대, 평화지구 1,027세대, 재건축 아파트 등까지 합하면 총 1만6,000여세대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마동공원, 수도산공원, 평화지구에는 내년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를 800~900만대로 추진하고 아파트 청약 시 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 우선 공급 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일자리 분야는 인구정책의 핵심이 '청년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장

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한다.

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익산형 청년수당'을 도입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돼 1년 이상 근무한 청년 근로자들에게 3년간 매월 30만원씩 최대 1천 8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홀로그램 등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함께 강소기업을 유지하는 한편 익산 스마트 청년 벤처타워(가칭)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창업을 활성화할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출산·양육분야는 출산·보육부터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 자녀까지 익산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해 셋째 이상 자녀여 가정에 5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다자녀수당을 지급하고 모든 산모

를 대상으로 산후도우미서비스를 지원한다. 보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휴일에도 필요할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무상보육실현에 앞장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힐링할 수 있는 관광지와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소송으로 오랫동안 중단됐던 웅포관광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남부권역 민경간에는 대규모 캠핑장을, 용안 말산업 체험관과 공공마장, 말산업 특구, 팔봉공원에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대규모 키즈랜드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익산 전 권역에 걸쳐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여가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28만 사수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고 호소하면서 '익산 주소 바로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는 28일 유재구 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택과 일자리, 출산·양육, 문화환경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 아파트 대량으로 쏟아진다

대규모 녹지 공원 조성 등

익산시는 내년 상반기쯤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1만여세대에 이르고 임대에서 일반분양까지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최고명품에서부터 중·저가의 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대규모 공원이 동시에 조성됨으로써 시민(소비자)들의 기대가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익산시의 공동주택 거래가격 인상은 최근 10여년 가까이 대단지의 공동주택이 공급이 없으면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게 주요원인으로 알려졌다. 또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급물량의 주요 사업중에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민간특례사업)이 가장 확실한 사업으로 꼽힌다.

정현을 익산시장의 과감한 정책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익산시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녹지나 공원으로 쓰여 기능이나 역할을 못하는 지역을 개발하고 대단위 공원조성을 하여 도심의 허파기능을 갖춘 명품공원을 조성, 익산시에 기부채납한 뒤 동시에 사업자에게 해당 공원지역의 30%이하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해 일정 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이미 5개(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 소라산)공원사업은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수백억원씩에 이르는 사업보증(예상되는 토지보상비의 약80%)등을 익산시에 예치했고, 특히 자이아파트로 알려진 마동공원지역은 토지보상금 수백억원의 브릿지 자금을 일으켜 지난 25일에 토지협의 매수에 응한 토지주들과 용역비등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에 착수했고 모인공원 사업장은 10월 경에 토지보상금을 협의매수가 정리되는대로 지급할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머지 수도산공원과 소라산공원의 경우에도 조만간 사업에 착수할것으로 보인다.

각 사업장의 현황을 우선 살펴보면 마동공원은 우리나라 최고로 꼽히는 GS자이가 시공·준공을 책임지는 약 1,460여세대의 사업이고 모인공원은 중흥건설에서 약 1,000여세대(임대10%)를 수도산공원은 풍경채는 브랜드로 알려진 전남 제일건설에서 약 1,560여세대(임대10%)가 넘는 사업하면서 팔봉1공원은 서희건설에서 약 2,330세대(임대10%)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함께 소라산 공원의 경우 IH공사 임대 1,000, 일반분양 300세대 공급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이른바 연말쯤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수백세대씩의 일반 개발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익산지역 공동주택 개발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점도 유의해야 한다는게 부동산업계의 우려적인 반응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 드론활용 농공 병해충 방제 효과 특특

익산시가 농공 생산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농공 병해충 방제 기술을 확대 보급한다.

농업기술센터는 28일 오산면에서 전북농업기술원,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활용 농공 병해충 방제 평가회를 가졌다. 공은 가뭄의 제약을 덜 받고 소비범위가 넓어 비교적 소득이 안정적이나 파종과 수확까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농작업의 기계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앞서 시는 올해 농공 안정생산 및 생산기술 생력화를 위해 농업용 드론 2대, 농공 복합파종기, 공 정전기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드론은 춘포면 소재 영농조합법인, 오산면 소재 친환경연구회에 각 1대씩 지원했고, 농공 복합파종기, 공 정정기는 용문면 소재 작목반에 지원하여, 공 병해충 방제 연시는 8월에 춘포면 들녘에서, 공 병해충 방제 결과 평가회는 9월에 오산면 들녘에서 실시했다.



농공 복합파종기는 깊이 25cm~30cm(일반적으로는 23cm~25cm)의 견고한 두둑 형상으로 배수를 빠르게 하여 습해 피해를 최소화하게 만들어졌는데 올해는 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침관수에 의한 피해가 없었고 드론활용 공 병해충 방제는 기존 방식에 비해 80% 이상의 노동력 절감 효과 및 농약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올해 지원한 공 관련 농업기계는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한 파종, 방제 및 수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정부 각종 뉴딜사업 선제적 대응

디지털·그린뉴딜 등 총 75건 1조2000억원 규모 적기 발굴

군산시가 2022 국가예산 및 2021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28일 군산시 정책자문단과 함께 전격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포스트코로나 및 정부의 K-뉴딜 기조에 맞춰 군산시의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정부의 각종 뉴딜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

략적 보고회로 풀이된다.

시는 총 75건에 사업비 1조2,600억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했으며,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그린뉴딜 분야의 ▲새만금 국가산단 RE100 집적화 단지조성, ▲도시 녹색전환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RE:WATER 전 국토최초 공업용수 재이용 사업 등이 있다. 디지털뉴딜 분야에 ▲스마트 교통 복합 허브설치 사업, ▲군산시간여행 마을 스마트 축제관광 도시건축 사업,

▲5G 연계형 어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그리고 안전망 강화 분야에는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운영 사업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시는 정부 K-뉴딜 발표 이후 도내 지자체 최초로 군산형 뉴딜 키오프 토론회를 개최했고, 군산시 정책자문단을 활용한 분과별 발굴 토론회 및 한국판 뉴딜 전문가를 초빙한 뉴딜 대응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왔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군경합동묘지 개방

군산시는 추석 명절기간 군산군경합동묘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산군경합동묘지 방문 시에는 코로나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이 가능하며, 동 시간대 밀집 방문시 제한을 두어 순차적으로 입장 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성묘객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조문할 수 있도록 묘역 제조작업 및 환경정비를 완료했다. /*군산=한경봉기자

익산시, 아동보호체계 구축

익산시가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적극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이 강화된 아동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학대 조사공무원 2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아동복지과에 배치해 다음달 1일부터 확대하는 아동의 적극적인 보호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도용국가 아동정책' 시행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는 확대하는 아동보호체계를 공공인력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아동보호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명절음식 한보따리 행사

추석을 맞아 명절음식을 만들어 이웃에게 전달하는 정감있는 행사가 열리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군산자원봉사센터는 28일 군산자원봉사센터 내 조리실에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명절 음식 한보따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추석 명절에도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기획했다. /*군산=한경봉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